

##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 전하기

마태복음 11:16-30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도와 복음 간증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목으로 붙인다면 "복음의 정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의 정직성." 이 말을 함으로써 저는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정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 사역, 전도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죄인들에게 진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복음의 정직성은 우리 주님에 관한 한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역이며, 이보다 더 적은 것은 우리의 소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음은 영광스러운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영원히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복음은 기쁨을 영원히 배가시키고 슬픔을 영원히 배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순수한 기쁨을 영원히 확대하거나 순수한 고통을 영원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 후 복음을 들은 죄인은 시간적으로나 영원적으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접한다고 해서 죄인이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것이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그 주장, 그리고 그 명령을 이해하는 사람은 시간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각처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의 달콤한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니,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향기요,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향기니라."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죽음을 화합시키고 생명을 화합시키며 어느 누구도 똑같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계속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 있지 않고 무서운 심판의 기대만 남게 됩니다." -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계속 죄를 지으면 무서운 심판, 즉 "대적들을 삼킬 불의 분노가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제쳐 둔 사람은 두세 증인의 증언에 자비없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아래 짓밟고 자신이 거룩하게 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면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며,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11장으로 넘기시고 15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들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깨어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이곳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 13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3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실 내용의 심각성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열방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선교사, 완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연민, 부드러움과 친절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경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선지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앞 열 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속자 등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계시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10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 번째 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10 장 32 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시인하리라."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열 장의 계시가 끝난 후, 그분은 오늘 밤 세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정에 분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현실을 제시하십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 오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가져 오러 왔습니다. 남자를 아버지와 대적하게 하고, 딸을 어머니와 대적하게 하고,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대적하게 하면 한 사람의 원수는 그 집안의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아들 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은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나를 위해 찾을 것이다." 이것이 10 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와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11 장과 12 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첫 열 장에 대한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11 장과 12 장, 심지어 13 장까지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 장 초반에 나오는 한 가지 반응은 의심입니다. 11 장 초반의 또 다른 반응은 혼란 또는 당혹감입니다. 그리고 12 장에 들어오면 피상적인 놀라움, 기적에 대한 일종의 매혹, 심지어 신성 모독으로까지 발전하는 거부감 등 몇 가지 다른 반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 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일종의 냉소적인 무관심이나 무관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 밝혀진 모든 것,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보여주신 모든 것, 의심도 있었고 당황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고 매혹도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는 그분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그분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종류의 악랄한 모독적인 증오는 없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불신은 그저 무관심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16 절부터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통적인 랍비 방식대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하리요?" 이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며, 모든 유대인 문학에서 가장 흔한 가르침의 형태인 은유, 직유, 비유, 비유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할까요? 이 세대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지만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는 장송곡을 불렀지만 너희는 슬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세대는 마치 열린 장터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장터는 모든 작은 마을과 도시의 중앙에 있는 광장으로, 일주일 중 일정한 시간에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던 곳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도시 공원과 같았고 동네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비어 있을 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원과 같은 아고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린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의 게임은 필연적으로 어른들의 게임이나 어른들의 행사, 또는 어른들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회 생활에서 가장 극적인 두 가지 사건, 즉 장례식과 결혼식을 따라하도록 고안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례식 게임을 하고 있고 결혼식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도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부, 누군가는 신랑, 누군가는 들러리, 누군가는 들러리,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혼식은 즐거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 플루트를 연주했지만 당신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라고 읽었습니다. 결혼식 게임에는 기쁨 때문에 피리라는 악기가 필요했고 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장례식 게임에서는 더지와 애도곡을 부르며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애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가 보는 것은 완고한 무관심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어린이 게임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언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최악 된 본성의 완고한 비뚤어 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적대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악하다는 것도 아니고, 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실까요? 18 절과 19 절: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장례식 모드로 오셨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 인자는 먹고 마시며 오셨고" - 결혼식 모드로 오셨고 -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폭식하고 술 취한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들은 비열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 차림으로 오셨고 요한은 장례식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18 절에 나오는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다"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회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 3 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고, 광야 한가운데서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고립된 채 살았으며, 그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종말론적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는 "누가 당신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은 요한의 게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분에 대해 '그는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마에 썩었다. 그는 미쳤고, 정신병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 대신 조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지 않고 마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나사렛 마을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매일 식탁에 앉아 가족 및 지역 사회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그분은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회개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는 "메시아가 여기 계십니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큼니다.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두 장을 거슬러 올라가 9장 14 절로 가보세요. 장례식 모드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회개나 파멸에 관한 것이라면 슬픈 모드에 있는 것이고, 금식은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15 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시종들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슬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 시간이고, 축하의 시간이며, 생명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19 절, "그들이 말하되,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주정뱅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더라!"

그들은 세례 요한과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항상하는 일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관심, 자신감, 무관심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너무 의로워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악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기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는 폭식가이자 술주정뱅이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공리적이고, 진실이며, 자명한 현실입니다. 19 절 하단에 "그러나 지혜는 그의 행위로 입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누가복음 7 장 35 절에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입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그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요한과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거짓 고발과 같은 타락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높은 곳에서 오는 참된 지혜, 즉 요한이 전파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지혜는 회개하고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냈으며, 따라서 지혜가 입증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 장 13 절에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실에서 선한 행동으로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롭다면,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가 여러분의 행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에 질투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교만해져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질투와 야망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모든 악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평화 롭고 온화하며 합리적이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 차 있으며 위선이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씨앗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뿌립니다."

지혜는 자녀에게서 나타나며, 자녀는 미덕입니다. 지혜는 행동, 덕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신성한 지혜가 입증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궁극적인 평결 - 들어보세요 -

복음에 대한 궁극적인 판결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궁극적인 판결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믿음과 그러한 것들의 열매로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불신하며 독선적인 죄인들은 거부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심지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심술쟁이 아이들처럼 복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가 거부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 메시지가 거부되었을 때 -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가 거부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께 실망하셨나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분이 하지 않으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셨고, 방법도 바꾸지 않으셨으며, 단지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바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분열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19 절까지는 온유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 절부터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자 그분은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직성에 의해 요구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 새로운 접근 방식, 큰 분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이들은 "비난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 심판을 동반하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용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연민이 분노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분은 대부분의 기적이 행해진 도시들, 즉 그분의 두나미, 권능의 행위가 행해진 도시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도시의 제도도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20 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과 그분의 권능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대한 신성한 비난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주님과 신성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노출되는 양이 많을수록 그들의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똑같은 수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죄책감이 가중되고 형벌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매일, 한 달, 한 달, 한 달 계속해서 구주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됩니다. 복음을 더 많이 접할수록, 그리스도의 실재와 그분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질수록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클수록 형벌도 커집니다.

그래서 21 절에 "화 있을진저, 초라진아!"라고 읽습니다. - 저주, 저주, 진노를 뜻하는 단어인 "화 있을진저, 벅새다야!"는 주민들이 복음을 접한 두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복음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나의 말씀이 니느웨를 놀라게 한 것처럼 그들을 놀라게 하여 도시 전체가 회개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파멸이 선포되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초라진! 화가 있도다, 벅새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기적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면 그들은 오래 전에 굶은 벼룩과 재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당신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2.5 마일 떨어진 초라신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날 그곳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벅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에도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가버나움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그라운드 제로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20 장 말미와 21 장 25 절에서 주님이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셔서 다 기록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며, 주님은 "그들이 본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오래 전에 굶은 베폿과 재를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은 베폿과 재는 굴욕과 슬픔, 애도와 회개의 상징입니다.

초라진과 벳새다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권이 커지면 책임도 커집니다. 초라진과 벳새다에서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죽음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절에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 도시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 부도덕, 사악함, 교만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했고,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26 장부터 28 장까지, 이사야 23 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요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 두 해안 도시에 대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티레와 시돈.

마태복음 15 장 21 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 도시를 방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라진과 벳새다에서 행한 기적이 그곳에서도 행해졌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라진과 벳새다는 거절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 훨씬 더 많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지옥에도 형벌의 정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3 절과 24 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가버나움아, 너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지? 당신은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 또는 이 경우에는 지옥 - "소돔에서 일어난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당신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강간하려는 소돔 사람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가버나움의 종교적 유대인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천사를 강간하려 한 소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종교적 유대인에게 지옥이 더 뜨겁습니다. 심판은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초라진과 벳새다를 능가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다른 두 도시보다 더 많은 주님의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소돔은 사악함에서 두로와 시돈을 능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사악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변에 남아 있거나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 시대에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돔.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동성애적 타락 때문에 소돔을 불과 유황 속에 묻어 버리셨습니다. 심판에서 소돔 주민들보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을 배척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직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직성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정직함입니다. 언약의 피를 발로 짓밟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야합니까?

이 마을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회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믿지 않았고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분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행적과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었고, 존경할 만했고,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 노출된 존경할 만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종교인들은 지옥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직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동 사람들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복음의 정직성은 강력한 경고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동정심 어린 탄원을 요구합니다. 동정심 어린 탄원은 16 절에서 19 절에 있었고 강력한 경고는 20 절에서 24 절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정직성에서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25 절에 있습니다. 이를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신앙에 대해 슬퍼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나요? 물론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물론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처럼 "오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이며 그들이 거절할까요?"라고 느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25 절을 주목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복음 거절에 대한 반응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인가요? 무관심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나요? 당신은 즉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복음이 거부되고 심판을 가중시킬 때에도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아들의 영광스러운 확신입니다.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려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이 말을 듣기 전보다 더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듣고 거부할 때마다 영원한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무서움을 깨닫고 즉시 예배로 돌아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은 바로 그 당시, 바로 그 현실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형이자 세상의 전형인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마주하고 계셨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낙담하지 않으셨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인 창조자, 지탱자, 통치자, 완성자라면 당신이 책임자이십니다.

찬양은 복음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운 제안을 하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권유하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죄책감과 영원한 형벌의 위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숨기고 네피오, 젓 먹는 아기, 젓 먹는 아기, 무력한 사람들에게 드러내 셧다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 장에서 18 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26 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생각하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는 많지 아니하며", "명철한 자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는 많지 아니하며", "달란트는 많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많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무효화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계시하셨을까요? 26 절, "아버지, 이 길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 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대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느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의 기쁜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아들로 입양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쁘시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기에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7 절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주셨나이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 장에서 "아버지께서 끌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창세 전에 선택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며, 아버지께서 끌어내어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 "아들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죄인들에게 마음을 쏟아 붓고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믿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그 심판의 확대에 대해 경고 할 때, 그들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거부하고 여전히 무관심하고 여전히 관심이 없을 때,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올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들을 받으실 것이고, 아들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6 장, "그분은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리실 것입니다."

구원과 회개, 복음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 그리고 아들의 사역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서 모든 공로, 이성의 모든 힘과 능력, 인간이 꿈꾸는 자유 의지는 바닥에 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11 장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세요. 주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주권 교리에 대한 확고하고 완전한 이해와 택함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초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8 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어떤 종류의 반감이 있는 것처럼 주저함도, 경고도, 설명도, 모순에 대한 자의식적인 두려움도 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정직함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간청을 합니다. 복음의 정직은 거절자에게 가혹한 복합적 심판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정직은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직함은 또한 공개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적 선택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이해는 그 제안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그 제안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이 응답할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짐에 짓눌리고,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파묻혀 아무런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안식 제의는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선적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 자기만족에 빠져 심술궂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사람들, 모든 인적 자원을 다 소진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정직성은 "영원한 구원의 제안은 죄와 죄책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두들겨 맞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린 여러분 모두,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 구원의 안식, 구원의 안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29 절에서 그 안식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목수였을 때 많은 멍에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잠깐만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거라면 그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하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와서 나를 당신의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와서 나를 너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의 노예, 나의 들로스, 나의 마테 테스, 나의 학생이 되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당신은이 관계를 사랑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위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정직함은 거절당할 때 자비를 베푹니다. 복음의 정직은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가중될 것을 경고합니다. 복음의 정직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의 정직함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복음의 총만함입니다. 복음에는 자비로운 간청, 강력한 경고, 확신에 찬 교리뿐만 아니라 위로의 약속도 있으며, 우리는 죄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